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판: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 서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미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24호 현대불교  
2009년 3월 25일(음력 2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 이런저런 것 다 불문에 부치고 모든 것 주인공에 놓아라

(지난 호에 이어서)

물라서 그렇지만 이것을 다 공부해서 지혜롭게 되면 그때는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권투를 잘하는 선수가 조그만 애들 막 주먹질하는 걸 보고 피식 웃고 썼듯이 말합니다. '아이구! 그거 뭘 저런 걸 가지고... 에이! 그냥 말할 것도 없구나!' 하고선 그때는 말수가 적어지고, 공부할 하다 보면 말수가 적어지고 또 욕심이 적어지고 집착이 적어지고, 높고 낮고 이런 것에 집착이 적어지고 반항이 적어지고 남을 원망하는 게 적어지고 매사가 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냥 자꾸 개선이 되죠. 이렇게 해서 금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인데 누구를, 형상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또는 이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세 가지가 다, 행과 말과 뜻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따르라 이겁니다. 따르라! 믿는 것은 바로 자기 한마음 주인공만 믿어라 이거죠.

악업 선업, 업식이 자기한테 잔뜩 들어 있고, 과거는 지나갔으니, 벌써 현실에 자기가 끼고 있으니 없는 거죠. 현실에 끼고 있으면서 미래로 자꾸 연결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단번에 이 자리에서 해결해 버려라 이겁니다. 업식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그저 거기가 다 가져없이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네놈한테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맡겨 놔요.

**질문자1(이):**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도량을 마련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국민 개개인 이 돈을 조금씩 모아 한 사람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고 두 사람, 세 사람 만들어 주고 그랬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보니 '아! 이것으로구나.' 하고 느낀 바가 큼니다. 스님, 우리 국민 개개인을 마음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도량을 마련해 주신 이 감사함을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서원을 세우기를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하고, 딴 하나의 악한 일도 하지 않겠다.' 하고 발원하면서 걸어왔는데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딴 사람에게 거슬리는 것을 할 때가 많은가 봐요.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께 질문합니다.

**큰스님:** 한 가정에서 식구가 모여 살면서 생기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죠. 자손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수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죠? 그냥 증오하면서 말은 못하고, 말을 하려니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냥 참다 참다 가슴이 멍이 들게 되는 수도 많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것을 거죽으로 "요놈의 새끼야,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남편이 그러다 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복장을 썩이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면 항상 대립이 되기 때문에 쌍방이 입을 더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이 전부 가설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인연없는 가설입니다. 생명이 돌이 아니듯이 내 주인공과 저 주인공이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모두가 주인공 자체는 돌이 아니니까, 그저 주인공 당신만이 그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고, 당신만이 공부 잘하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서 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저쪽에도 불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죽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저 잘 이끌어 가면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요. 애도 어른도 다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음 데로 고이게 되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데로, 부드러운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참, 아주 제일 좋구나.' 하고선 가정으로 열만 틀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뒷면의 인연의 줄이, 법망의 줄이 이어져서 불을 켜 주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불이 들어오니까 전부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런 분이 있었죠. 가장 일이 끝나도 집에 들어가고 싶질 않고 괜히 자상이 헛헛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가서 술한 잔 흥건하게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도 다 귀찮고 다 매다 패대기치고 싶고 그렇대요. 이것을 억지로 못하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의 부인에게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의 업이 미워, 그런데 당신의 업도 그 남편의 업도 돌이 똑 같지? 어느 하나도 기우고 트는 게 없어. 보는 눈

고 용신, 지신까지도 돼 주느니라. 누가 응해 달라고 하든지 응신이 돼서 전부 천백억으로 나투느니라.' 이러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머리 깎은 스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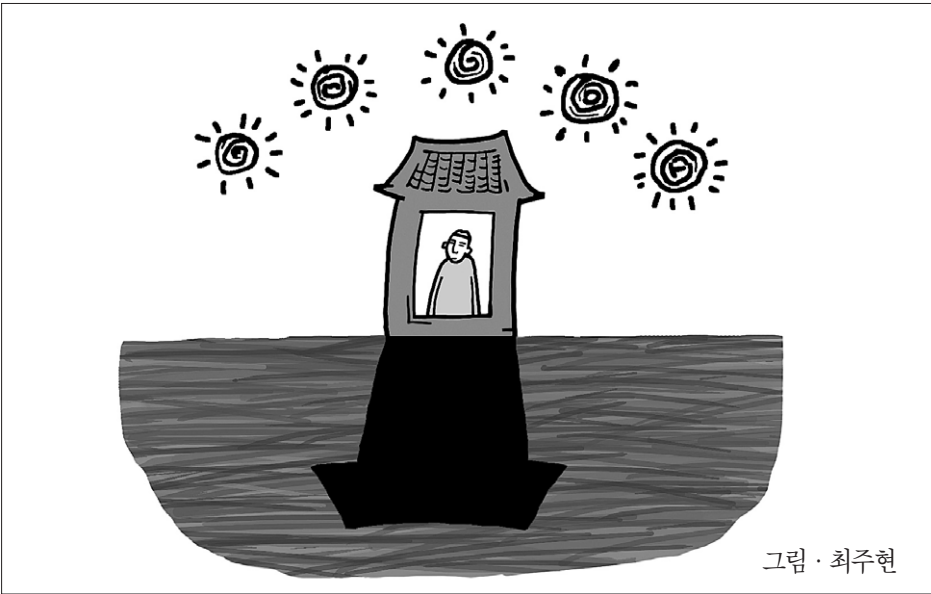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나 하는 놈이나 똑같다 이거야.' 하하하... 그러니까 강퍽은 강퍽끼리 모였다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그 업을 모두 없애려면 남편 탓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자식이 그렇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거기가 놓고 놔여라. 그러면 거기까지도 놔여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들어오더니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내가 괜히 술 먹어서 돈 없애고 세간 부수고... 내가 미쳤나봐. 여보, 나 참 미쳤나봐." 그러고는 수박 한 통을 건네주면서 "이거 술 먹음 걸로 수박 사 왔지." 하하하! "아니, 소쿠리 하나만 부서져도 내 손해인데, 내가 또 사다 놓아야 될 텐데, 손해 나는 일을 괜히 했어." 그러고는 아주 우스워서 죽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날부터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아져서 잘 살게 됐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상구보리 하회종생 하라. 위로는 네 자성불을 섬기고 아래로는 네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라. 그러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제도가 돼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투느니라. 털구멍을 통해서 눈구멍을 통해서 나투면서 모든 사람에게 약사도 되고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지장도 되

유마힐 거사 아시죠?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마힐 거사도 그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게 다 부처님들입니다. 머리 깎고 입산한 사람이나 입산을 안 한 사람이나 마음 닦는 것은 같다는 그 뜻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또 여러분도 공부해라 하는 뜻에서 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 스러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야죠. 모두가 그렇게 해서 시급히 업식들을 녹이고 다스리면서 실천을 해나

가는 이러한 공부가 됐으면 합니다. 또 누구 없습니까?

그러니 아옹다옹하고 싸우고 "요놈 자식, 왜 공부 안 하고 요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느냐?" 하고 그냥 밖으로만 야단하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지 말고 안에다 놓고 "애! 너 밥이나 먹고 다니니? 잠은 어떻게 자니? 집에 들어와서 자야 편안하지 않겠니?"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인의롭게 말해 주세요. 봄에 꽃 피듯이 말입니다. 겨울에는 보잘것없었던 고목이 봄이 되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조건 없이 모든 게 들어옵니다.

**질문자2(이):** 저는 안양까지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못했는데 이렇게 마산에 오신 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공부를 딴 분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마음자리에 다 맡기는 공부를 저 혼자서 하긴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서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큰스님:** 사람은 한 참나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

다. '그놈은 누구고 그놈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놈은 누구고 자다가 일어나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꾸는 놈은 누구고 생시에 이렇게 다니는 놈은 누구냐?' 이 모두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옳았을 뿐이지 생각이 옳다면 이 우주를 그냥 단번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삼천대천세계를 단박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면 이게 뭘 소리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참 멋진...

그래서 우리가 그 도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냥 삼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참, 위로는 평등공법이 되고 아래로는 철학공공법이 되고, 셋째에는 팔수레공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들고 나면서 다양하게 자재할 때 비로소 '자재할 것도 없다. 자재한 것도 없다. 나는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한 예도 없다. 나는 말한 것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게 나오죠. 그러니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데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감당할 수 없는 그 보살님의 마음이 감당하기 어렵게 용도에 따라서 딱치는 그거나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허!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나는 것도 네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 거기가 다 그냥 맡겨 놓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놈은 누구고 감당하기 쉬운 놈은 누구냐?' 하곤 그냥 거기가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맡겨 놓을 수 있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샘터에서 샘물이 꼬약꼬약 나올 때에 샘물 맛을 알겠죠.

**질문자3(이):**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을 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나 되는 것 같고 하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심장판막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나올지, 저는 수술받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그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스님께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그건요, 맥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질문자3(이):** 마음이에요?

**큰스님:** 예, 수술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진짜 자기 자성

26면으로 계속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 "여성이 살뺀다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뺀다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외 100가지 보유

-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kg 빠짐) - 칠선초 ₩88,000
-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87,000
-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85,000
-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86,000
-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88,000
- \*만성변비 -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는 분 ₩80,000
-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85,000

- \*어린이아, 학생, 성장발육 - 만병초, 녹용, 차기버섯 387지 ₩150,000
- \*각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그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별하십시오

인생상담 전화상담환영



달마도 ₩58,000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 전통범음법(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 법매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법매,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 (2개월)  
\*송주 : 도량식, 종송 등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관공 : 삼보통칭, 삼단, 중단관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전문과정 (4개월)**  
\*시연, 대령, 관음, 응호계(신중작법104위), 지정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응염반, 화엄시식, 구법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 (6개월)**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나비춤 : 오공양, 원운송, 요점작법  
\*사 물 : 태정, 북, 관성,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특 강 : 폐불이음, 종사이음, 종사염반, 정인의식, 시달림(대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 별도)
-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중무원 설법전
-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중무원에서 교부)
-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 법매 교육원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 정 청 봉  
총무원장 혜봉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서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1-82호 법인 설립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 종단 입증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 입증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집한다. 연락바랍니다.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